

법사학 관련 신간 안내

- ◎ 윤대성, 『한국민사법제사연구 -일제의 한국관습법조사사업과 민사관습법』, 창원대학교 출판부, 1997년 12월, 283면
저자가 그 동안 발표해온 일제의 관습조사와 이와 관련된 민사관습법에 대한 논문을 수록하였다. 일제의 민사관습조사를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하였다.
- ◎ 丁若鏞 著/ 朴錫武·丁海廉 역주, 『역주 欽欽新書』 1~3: 朴錫武·丁海廉 校註, 『欽欽新書·原文』, 현대실학사, 1999년 8월, 각 422면, 375면, 397면, 418면
다산 정약용 선생의 형법서인 흠흠신서를 번역과 함께 역주를 하고 원문을 다른 판본과 비교하였다. 이 역서에는 많은 역자주가 있으며, 권말에 색인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아울러 판본비교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두 사례를 발굴하여 수록하였다. 이를 이용한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 ◎ 鄭肯植 譯, 『慣習調査報告書』, 개역판, 한국법제연구원, 2000년 8월, 454면
통감부 法典調査局에서 1908년 8월부터 1910년까지 한국의 민사상관습을 조사하여 1910년, 1912년, 1913년에 발간한 『慣習調査報告書』를 해제와 함께 번역한 것이다. 1992년에 발행한 초판을 전반적으로 정정하여 다시 발간하였다. 특히 초판에 있는 문서를 새롭게 조판하여 이용하기 쉽게 하였다.
- ◎ 김효전, 『근대 한국의 국가사상 -국권회복과 민권수호』, 철학과현실사, 2000년 7월, 817면
서구 헌법이론, 특히 국가와 헌법에 관한 이론의 수용사를 고찰한 논문을 수록하였다. 독자를 압도하는 것은 소개한 자료의 방대함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국가사상 관련 문헌을 소개하여 후학이 이를 토대로 심도있는 연구가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은 더욱 돋보인다.

◎ 金榮秀, 『韓國憲法史』, 학문사, 2000년 10월, 1181면

유사 이래 현재까지의 헌법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정리하고, 북한헌법사와 통일헌법의 문제를 다루고, 한국헌법학의 좌표를 언급하였다. 부록으로 근대 이전의 통치규범과 관련되는 자료를 소개하였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 및 관련자료, 조선총독부, 미군정기, 대한민국 및 북한의 관련자료를 소개하였다.

◎ 崔鍾庫, 『韓國法思想史』, 2訂新版,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년 3월, 490면

1989년에 발행한 초판을, 1993년 증보판을 거쳐 이번에 전정신판을 발행하였다. 전정신판에서 두드러지는 내용은 한국법사상사를 한국적 시각에서만 고찰하지 않고 시야를 국외로 넓혀 해외에서의 연구성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동아시아 법사상사 속에서 한국법사상사의 위상을 규명한 점이다.

◎ 서울대학교 奎章閣 소장 法制史 관련 자료 발간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1999년을 이어서 奎章閣資料叢書 법전편을 발간하였다. 『銀臺便攷』(2책), 『兩銓便攷·銀臺條例』[1책; 이상 해제 吳洙彰(한림대학교 인문대학 교수)]를 해제와 함께 발간하였다. 그리고 1876년 개항 이후 각 항구에서 이루어진 무역관계 자료, 즉 監理署와 중앙정부 각 부서와의 왕래공문을 요약한 『奎章閣所藏通商關係資料 요약』(전 2책)과 1895년 4월부터 1906년 12월까지 법부에 접수된 소장과 청원서를 수록한 『法部訴狀1』과 1896년부터 1906년까지 外部 또는 의정부에 접수된 소장과 청원서를 수록한 『外部訴狀』을 간행하였다. 공간된 자료집은 한국법사, 특히 근대분야의 중요한 사료로, 근대법사연구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